

효율적인 계사청소기 '하우스키퍼' 로 축산분야 본격 진출



▲ 회사 전경



▲ 이천종합농업기계 김정식 대표

우 계농가들에게 매회 사육이 끝날 때마다 가장 큰 고민은 계사 청소일 것이다. 깔짚과 함께 '땃'이 된 계분... 치우려면 인력과 시간이 많이 소모되고 새 깔짚 구입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그렇다고 그대로 방치하고 다음 병아리를 받기에는 암모니아가스로 인한 잦은 환기와 비용, 질병에 대한 근심으로 안 치울 수도 없다. 이러한 농가들의 고민을 해결해줄 간편하고 효율적인 계사청소기가 개발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계사청소기 '하우스키퍼' 개발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천종합농업기계(대표 김정식)를 소개하고자 한다.

경종농업기계에서 축산기계로

전북 익산시 목천동에 위치한 이천종합농업기계는 농업기계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 1999년 곡물이송기와 같

은 경종농업용 기계로 시작했다.

직원 13명을 두고 농기계 개발과 생산에 주력 해온 김정식 대표는 이제 많은 부분에서 경종농업의 기계화가 이루어지고 농기계도 많이 보급됐기 때문에 경종농업에만 전념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눈을 돌린 곳은 바로 축산. 폐사 축 위생처리기의 개발로 축산분야에 첫 발을 디딘 이천종합농업기계가 이번에는 육계농가들의 생산성 향상과 비용절감 효과가 탁월한 계사청소기를 내놓았다.

일거양득 계사청소기 ‘하우스키퍼’

이천종합농업기계의 자랑인 계사청소기 ‘하우스키퍼’는 깔짚과 계분이 뒤엉켜 단단하게 굳어진 계사바닥을 통째로 퍼내서 깔짚을 분리, 계분만 걷어내고 왕겨는 다시 바닥에 그대로 깔리도록 설계되어 있다. 깔짚만 분리하여 재활용할 수 있게 되어 빠르고 편리하며, 깔짚비는 물론 청소시 필요한 인건비도 절약하게 되어 생산원가를 낮출 수 있다.

우선 계사 바닥의 청결을 유지함으로써 건강하고 좋은 닭을 생산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

이다. 출하 후 계분을 바로바로 쉽게 치울 수 있게 됨에 따라, 암모니아가스 발생이 현저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잦은 환기로 인한 연료비 낭비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닭의 건강이 지켜지면 자연스럽게 폐사율은 낮아지고 생산성적은 올라가게 되며, 생산비용에 있어서도 연간 깔짚비용을 1/3 정도로 절감할 수 있어 여러모로 경제적이다는 것이 김대표의 설명이다.

하우스키퍼는 계사의 형태에 따라 트랙터에 부착하는 부착형과 트랙터 없이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주형이 있으며, 부착형은 계사의 규모에 따라 작은 계사용과 큰 계사용이 있다.

하우스키퍼를 직접 사용하는 농가에 사용소감을 물었다. 하우스키퍼로 계사청소를 하고 있는 전북 진안 소재 하늘농장 이경용 대표는 “기존의 청소하는 방식은 너무 힘들었다. 하림에서 미국산 계사청소기를 수입해서 농가들에게 판매하기도 했지만 가격이 비싸서 구입할 엄두를 못냈고, 수입기계로 청소대행을 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한 번 청소에 80만원씩 내야하니 이 또한 만만치 않았을 뿐더러, 남에게 맡기는 게 농장주 입장에서는 못미더울 수밖에 없었다. 이제



▲ 트랙터 부착형 ‘하우스키퍼’. 계분이 밑으로 들어가서 뒤집어져 윗부분으로 올라가면서 굳어있던 계분이 파쇄 및 분리되어, 깔짚은 다시 바닥에 깔리고 뒷부분의 적재함에 계분만 모아지게 된다. 적재함은 뒤집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어 적당한 곳(분뇨처리시설 등)에 쏟아두거나 발효시킬 수 있다.

는 진안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루에 7만원에 임대할 수 있는 하우스키퍼가 있어서 직접, 편하게, 저비용으로 청소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창계사에서 육계 7만수를 사육하는 이경웅 대표는 현재 진안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우스키퍼를 대여해 사용하는 농가가 다섯 농가 정도 되는데 다들 만족하고 있다고 전하며, 다른 지역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 기계의 임대사업을 한다면 육계 농가들의 비용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사용소감을 밝혔다.

농기계 임대사업도 '고효율'

경종농가 제품에 주력해왔던 김정식 대표가 축산분야로 눈을 돌리게 된 것은 육계농가들의 요청 때문이었다. 이천종합농업기계는 한국농업대학교 축산과 노환국 교수팀과 공동으로 작년 6월 하우스키퍼 개발에 착수하여, 반년여의 실험과 개량을 통해 올해 초 처음으로 하우스키퍼를 선보이게 됐으며, 진안군 농업기술센터에 처음으로 납품하기에 이르렀다.



▲ 공장 사무실 한 켠에는 음악연주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평소 색소폰 연주를 즐겨하는 김 대표는 15년째 동호인들과 지역공연도 갖고 있다고 한다.

김정식 대표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임대사업과 연계하여 많은 농가들이 고가의 장비를 직접 구입하지 않더라도 저렴한 비용으로 대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게다가, 하우스키퍼의 경우 임대사업의 효율 가치가 다른 기계에 비해 매우 높다. 일반 경종농업용 기계들은 1년동안 파종, 수확 등 정해진 시기에 1~2회 사용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은 방치되는 경우가 많지만, 육계농가들은 한달 남짓만에 출하하게 되기 때문에 하우스키퍼를 번갈아가며 대여하여 사용하고, 사용빈도가 높아 그만큼 경제적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농가들 간의 질병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 후 철저한 소독과 관리는 필수라고 하겠다.

“축산농가들로부터 인정받는 회사로 자리매김할 것”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질문에 김정식 대표는 축산분야로 여러 제품을 개발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다음 제품으로 조사료 관련 장비의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김 대표는 제품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마케팅이라며, 마케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농가들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농가들을 위한 제품개발에 더욱 매진해 축산분야에서도 농가들로부터 인정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10년간의 기계생산 노하우를 바탕으로 축산분야에서도 빠르게 뿌리내릴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취재 | 김수영 기자
kyunyang@gmail.com

